

무등산 대표사찰 있는 탐방로 조성

증심사·약사암·문빈정사 연결하는 의재길에 탐방데크 시설

광주광역시 사적1호인 무등산 증심사와 약사암, 문빈정사를 잇는 탐방로(의재길)가 정비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증심사 입구 탐방코스 중 하나인 '증심사~약사사 구간'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저지대 탐방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구간은 일반 방문객, 노약자, 사찰 신도 등 탐방객 이용이 많은 무등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저지대 탐방코스이다.

다만, 보도와 차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통행 혼잡과 차량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지난겨울에 탐방객을 피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량 전복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해당구간에 흙길 탐방로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캔틸레버(cantilever) 한쪽만 고정시키고(고정단) 다른 끝은 돌출시켜(자유단) 그 위에 하중을 지지하도록 한 구조의 목재데크를 설치하여 안전한 탐방로를 조성하고, 소규모 벤치 등의 쉼터 공간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국립공원인 지리산, 치악산, 가야산 등 차량과 탐방객이 혼재된 탐방로가 있는 국립공원에서는 대부분 차도와 보도를 분리해서 탐방로를 정비하여 탐방객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다.

증심사 종무소는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평상시 많은 등산객들이 무등산을 찾고 있으나 탐방로는 아직 예전 그대로여서 안전사고에 많은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씨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어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무등산국립공원은 지난 4월 24일에는 학계 전문가,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사찰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설계 심의위원회를 가졌으며, 본 구간을 이용하는 탐방객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현재 탐방로(사진 왼쪽)와 새로 조성 예정인 의재길 탐방로(사진 오른쪽)



을 대상으로 현장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관련법에 따른 협의의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재길 탐방로 확장 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현재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탐방객 수가 늘고, 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유도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가장 고려돼야 하는 것은 무등산 보전이다"며 "지속가능한 무등산을 위해 직접적인 이용 수요 조절이나 환경 부담을 최소화 하는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문빈정사, 증심사, 약사사의 주�행로인 '의재로'는 현재 증심사지구 주차장에서 약 500여 미터까지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된 2차선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증심사에서 증심사에 이르는 800m 구간은 차한대가 지날 수 있는 도로에 차량과 탐방객들이 영겨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약사사가 있는 400m 구간은 더욱 여건이 취약한 환경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 건립된다

화순군, 총 54억 원 투입해 2015년 준공 목표



'천불천탑'으로 널리 알려진 화순 운주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전남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6월 8일 화순 운주사 관광지 내 천불천탑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국비 32억 4000만 원 등 총사업비 54억 원이 투입되는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은 1400㎡에 지상 2층 규모로 2015년 12월 준공된다.

박물관은 천불천탑과 와불의 신비를 살린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그동안 운주사의 와불과 천불천탑은 풍화로 인해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박물관 건립은 운주사의 다양한 불상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운주사 천불천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화순군은 2012년부터 전문가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군은 "천년을 눈과 비를 맞으며 눈과 코가 사라진 화순 운주사의 불상과 숲한 바람과 구름이 스쳐 지나간 탑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며 "천불천탑과 와불의 신비를 살린 특색 있는 다양한 유적 및 문화재를 보유한 화순군의 위상에 맞는 문화관 건립으로 운주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지속적으로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빛고을 아이들 부처님 품안에서"

동원 광주지구 제7회 빛고을연꽃문화제



광주지역 어린이 포교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어린이 잔치가 열렸다. 동원 광주지구(지구장 도제)는 6월 6일 광주 무각사 앞마당에서 '제7회 빛고을연꽃문화제'를 개최해 미래 어린불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만 5세 이상부터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글짓기, 그림기 등에 300여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솜씨를 뽐냈다. 행사 접수를 시작으로 10시부터 법요식과 함께 10시 30분부터 작품 활동이 시작됐다.

이날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시제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어머니', '칭찬', '세월호' 4가지로 다양한 글과 그림이 접수됐다. 무각사에서 제공한

점심공양 이후 1시간 동안은 보물찾기와 노란리본 찾기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오후에 진행된 제3, 4부. 3부에는 김동준 소리마당 선생님의 사회로 아시아밤을 난타공연, 자성사 댄스, 속대머리 등 식전행사에 이어 댄스, 음악경연대회와 자유체험활동이 펼쳐져 참가 학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4부에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예선에 선발된 20여명의 아이들이 불교예절과 상식을 겨루는 시간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도제 스님, 성거사 주지 혜공 스님, 지용현 광주전남 신도회 회장, 방철호 목사(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등이 참여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 심으며 생명의 소중한 깨달아요"

전북불교시민연대가 창단한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이 6월 6일 생명평화 모내기 체험을 개최했다.

전주시 삼전동 농촌마을에서 열린 모내기 체험은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 40여명과 지도교사들이 동참해 직접 모내기를 체험하며 노동의 소중함과 먹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모내기에 동참한 김연아(정음여고 2)양은 "그동안 무심코 먹던 먹거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며 "실천단을 통해 접하게 힘들었던 체험을 하면서 생명평화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오종근 단장은 "생명평화실천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다"며 "로컬푸드, 슬로우푸드



드 등의 정신과 친환경농사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생명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이 심은 모는 가을 벼 베기 체험을 거쳐 시민단체를 통해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왕궁리 유적' 국제학술심포지엄

익산 미륵사지, 제석사지와 더불어 익산 지역의 3대 백제 사찰터인 왕궁리 유적에 대한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는 6월 10~11일 익산 월굴대 승상 기념관에서 '동아시아 고대 도성과 익산 왕궁리 유적'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 발굴조사 2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국제 학술 심포지엄은 한국, 중국, 일본의 연구자 20여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총 4개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첫날인 10일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의 도성 제도 △ 도성 조사·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11일은 △한·중·일 고대 도성 조사·연구 성과 △ 도성 유적의 보존과 복원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배병선 소장,



익산 왕궁리 유적의 고대 도성터 항공사진

충남대학교 박순발 교수, 중국 인민대학 위견(魏健) 교수, 일본 임부균(林部均) 등 고고·지리·건축·도시계획·조경학 등 고대 도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심포지엄이, 왕궁리 유적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고대 도성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신인작가전 열려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는 제2회 신인작가 기획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전시회는 엄기준(6월 2~15일), 이세현(6월 16~29일), 김경란(7월 1~13일), 리은(7월 14~27일), 노여운(7월 28일~8월10일), 이조흠(8월 11~24일) 신인작가 등을 차례로 개최한다.

두 번째 이세현 작품전은 '경계'라는 주제로 '화두를 던지다', '돌은 던지다', '돌은 역사다'라는 소재의 전시회다.

작가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인간과 자연은 대립적인 구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도 함께 보인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는 또한 무의식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도 함께 보인다. 자연에 대한 반성을 하는가 하면 그들과 같아지려고, 비슷해 지려는 여러 행위들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갈망하고 한편에서는 그리워 한다. 자연에서 나온 생명체로서 자연에 가지고 있는 본능이지 싶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로터스 갤러리는 매년 역량있고 발전가능성이 엿보이는 신인작가들을 발굴하고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6명의 신인작가를 발굴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흥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